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스타키스, 성 아펠로 사도

루가 제7주일

성 에브니키 순교자

제5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히브리 9,1-7 / 봉독서 619
- 복음경 : 루가 8,41-56 / 127, B 7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사도 바울로의 거룩한 협력자들

사도 바울로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로께서 로마에 남은 지인들과 협력자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에는 성 스타키스, 성 아펠로, 성 암플리아스, 성 우르바노스, 성 나르키소스 등이 언급되는데, 이 성인들은 70인 사도에 포함된 분들이며 교회는 이 성인들을 10월 31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협력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언급을 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언급한 부분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협력자와 보조자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일을 했는지 깊이 헤아리고 그것에 경의를 표하는 합당한 칭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지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로마서 16:9)

“교회를 분열시킨 죄는 순교자의 피로도 씻어내지 못한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설교 11, 에페소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우리는 신앙의 신조 아홉 번째 항에서 “하나인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교회의 공변성(보편성)과 사도성은 거룩한 일치의 바탕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골로사이 1:18) 즉, 사도 바울로가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히브리서 2:11)라고 말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성자의 신적 현존을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됩니다.

사도 바울로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은 공통된 요소를 가지는데, 그 중 핵심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교부들, 성인들, 성직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모든 인류는 일치를 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구원되고, 해방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상 우리 주님 그리스도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하고, 잘 알려진 인물은 없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인격을 능가하거나, 대신하거나, 대체할 인물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1고린토 3:11)라고 사도 바울로는

단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갈라디아 6:14)만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의,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인, 정치 지도자, 민족주의 이념, 지상의 권력자와 결탁하는 것은 허영의 결과이고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카이 사르’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치 권력의 도구와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히브리서 13:8)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골로사이 2:9) 있는데 어떻게 누가 그분에게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교회는 끊임없이 “모두의 일치를 위해”,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단과 분열이 와해되길” 간구합니다.(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사도 바울로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주신 가르침처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 3:28) 우리 모든 정교 신자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하느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교회 안팎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일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교부들의 가르침 3

어떤 수도원장이 한 무리의 순례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여러분은 정말로 아토스 산의 정상에 오른 것이죠?

— 네, 지난 해 구세주 변모 축일에 등산하였습니다.

— 그렇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느님의 거룩한 일들은 대개 높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시나이 산꼭대기 같은 곳 말입니다.

하지만 산꼭대기나 고층, 고원 지대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평야 지대를 떠나 산등성이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에서 멀어지며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산이 아니라) 평평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달콤한 하느님의 사랑에 다가갈수록, 인간적인 사귄이나 우정 그리고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것들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느님의 신비롭고 가늠할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을 마치 다발 산의 사도들처럼 감싸서 안아줄 것입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가을 바자회 결산

지난 10월 21일(일)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바자회가 하느님의 은총과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주일 성찬예배 후 한국,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 여러 민족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바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신자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준비하고 바자회를 즐겼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성당 주변의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바자회를 위해 준비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바자회

11월 11일 주일 성찬예배 후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여합니다.



주간 예식

- 11월 1일(목) 성 고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와 그들의 어머니 성 테오도티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